

가슴에 누워 쉬도록 해, 그럼 내 피로가 풀릴 거야.”

비르지니가 폴에게 답했네.

“아아 오빠! 저 바위 꼭대기에 비추는 아침햇살보다도 오빠가 있어서 나는 더 기뻐. 난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, 오빠의 엄마도 무척 사랑해. 하지만 두 어머니께서 오빠를 ‘우리 아들’ 이라고 부르실 때 나는 그분들을 더욱 사랑하게 돼. 엄마들이 오빠한테 애정을 표현하면 나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그걸 느낄 수 있어. 오빠는 오빠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지만, 함께 자라면 다들 서로 사랑하는 거야. 우리 새들을 봐봐. 한 둥지에 자라면서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서로를 사랑하고, 또 우리처럼 늘 같이 있어. 나무에서 나무로 서로를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를 들어봐. 오빠가 산꼭대기에서 피리를 불면 그 가락이 메아리가 되어 들려오고, 그럼 내가 이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 다시 부르는 거랑 똑같아. 오빠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. 날 위해 그 노예 주인과 싸워주려고 했던 날부터 특히 더 그래. 그때부터 몇 빈이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. ‘아! 우리 오빠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. 오빠가 없었으면 나는 무서워서 죽었겠구나.’ 나는 매일 우리 엄마를 위해, 오빠의 어머니를 위해, 오빠를 위해, 또 우리 가여운 종복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. 그런데 오빠 이름만 입에 올리면 내 치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. 오빠한테 나쁜 일일랑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간곡히